

연중 제32주일

제1독서 : 말라 7, 1-2, 9-14

제2독서 : 2데살 2, 16-3, 5

복 음 : 루가 20, 27-38

순정이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는 것이다.”
(루가 20, 38b)

강론

부활은 우리의 희망

강덕행 신부 / 용안 천주교회

오늘 복음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모세의 법(신명기 25,5)에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칠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일곱 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하고 예수를 시험한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지금과 같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죽는 일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명예, 권력, 재산만을 위해 노력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가엾다.

성부의 뜻에 따라 세상에 파견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세의 고통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삶은 즐겁다. 반대로 희망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에게겐 절망뿐이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는 것이다.”(루가 20,38)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서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 영원히 삽시다.

소리

정직한 정치가, 정녕 아무도 없는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새 노래 ‘시대유감’의 노랫말이 공연윤리에 어긋난데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수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이렇다.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네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기를...”

공연윤리위원회는 “가사가 전반적으로 너무 부정적이며 특히 위의 세 구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사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팬들은 “들으라는 것만 들어야 하는가, 지금이 진짜 문민정부 시대인가”하는 비난도 서슴치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이 노래에서 이 시대의 징표인 ‘시대유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째서 젊은이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로다”하는 점을 함께 걱정하고 자성(自省)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한 돈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암울한데,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그저 코 앞에 닥친 불만 끄고 보자는, 관련있는 사람들의 녀석 좋은 거짓말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시사주간지의 작은 제목, 「‘대선자금 안 받았다’ 강아지도 안 믿는다」를 보자니 문득 서태지의 ‘시대유감’이 생각나 한 소리 해 본다. ㉠

순정이 산책



반성하십시오!

성서교실 64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솔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창세 48장)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나쎄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 항렬에 들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동생 에브라임이 어떻게 형 므나쎄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간다. 문병 온 요셉에게 야곱은 가나안 땅 루즈, 즉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쎄를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은 자기 아들 항렬에 올려 놓는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나쎄 이외에 요셉이 난 아들들은 자기 아들 항렬에 들 수 없고, 다만 형들의 부족에 소속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요셉의 다른 아들들의 존재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애들이 누구냐?”고 요셉에게 묻는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전에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은 이사악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릴 때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상황과 같다. 그러나 이사악과는 달리 야곱은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똑똑히 알면서도 동생 에브라임을 므나쎄보다 앞세워 축복한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두 아이의 서열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곱은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요셉에게 감회에 젖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온갖 고통을 안겨 준 요셉의 실종이 이제 기쁨의 원천이 된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무릎 사이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양자택일의 예식에 속하는 자세였다. 요셉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절을 올린다. 그리고 큰 아들 므나쎄는 야곱의 오른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게 한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오른쪽은 행운을 왼쪽은 불운을 의



에브라임과 므나쎄를 축복하는 야곱

미한다.

야곱의 장엄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하나님, 둘째 야곱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셋째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야곱을 구원한 천사이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요셉의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청한다. 이어서 야곱은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하고 기원한다. 이 기원은 이야기의 저자가 후대에 에브라임 부족과 므나쎄 부족으로 하여금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에집트 땅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에집트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 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므나쎄 머리 위에 바꾸어 얹은 것을 고쳐 주려고 한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바꿔 얹은 것이라고 밝힌다. 야곱은 형 므나쎄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예언한다. 실제로 두 부족 가운데 에브라임 부족의 숫자가 더 많았다(민수 1, 33. 35 ; 2, 19. 21). 동생이 형을 앞서는 상황은 솔로몬 왕국의 서기관들인 야히스트들이 형을 제치고 왕위를 차지하게 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한 배려로 생각된다.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 · 피부과
메이크업 · 분장과
김 금 순(데레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주)이삭온돌침대[파워스톤]

수백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 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데레사)
전북대리점

☎ (0652)75-9824, 77-6587
호출기 012-687-8842
휴대폰 011-651-7124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젤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풍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교리상식 26

위령 성월 ②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선행의 의미

'모든 성인의 통공'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가능해진다. 우리는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죽은 이들과 천국의 성인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도움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러한 통공은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속죄함으로써 그들이 죄벌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있던 일이다.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가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2 마카12, 46)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사면을 받을 수 없어 형벌을 마치고 출옥의 날만 기다리듯 육체를 벗어난 연옥 영혼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다만 연옥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날 희망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옥 영혼들을 대신하는 우리의 기도와 속죄 행위를 하느님께서서는 받아 주신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하는 것은 그들이 진 빛을 대신 갠아 주는 것과 같다.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범 죄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속죄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때문에 하느님께 진 그들의 빛을 대신 갠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 사도요한의 말대로 우리는 죄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1요한1,8)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도 연옥에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 줄 것이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인간이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서로 공을 통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어 우리의 기도와 성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이다.

교구 소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환중에 계시던 김반석 신부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평신도 주일 2차헌금 : 11월19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1. 축! 견진 : 11월19일(일) 오전10시 옥봉 성당
2. 사제 평의회 : 11월14일(화) 오전10시 교구청
3. 새 사제 연수 : 11월16일(목) 오전10시 교구청
4. 중·고 성탄연수 : 11월18~19일 나바위 피정의 집
5. 치명자회 일일피정 : 11월17일(금)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당
6.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11월19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7. 신학생 부모 모임 : 11월19일(일)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상설교백소 :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2시~5시 전동 성당

요십이 (1158)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부친(박명규 다투 75세)을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는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박종근 신부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교형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진상 한의원

박진상 김정은(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241-5553, 242-5553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이혜경(글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 성소 피정

- 때 : 11월25일~26일 오후 5시
- 장소 : 예수 고난회수도원(광주 일곡동)
- 준비물 : 윤동복,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 피정비 : 3,000원
- 문의 : ☎(062)571-5004, 8004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덕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고냉지 배추, 고추 등 양질의 양념과 심자매품 : • 완전 무농약 진짜 순창 전통고추장(오리농 무농약) • 참깨+유기농 무농약 고추
 적산 지하 115m 청정 압반수로 담아 연중 -2C 냉각 숙성시킵니다.
 10개월 이상 전통 함아리 숙성) • 100%우리콩
 품목 : 배추김치,알타리,파,깍뚜기,동치미
 원장,간장·무농약 현미 찹쌀 계피미
 *우리집곡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 주문처 : 순창 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52-1004
 가톨릭농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FAX. (0674)53-041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32주일입니다.
- ◎ 주일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사목회 상임위원 개편: 회장-김동주(유스티노) 부회장-박일천(요한) 최철영(아오스딩) 총무-최만식(시몬) 부총무-최광식(베드로) 감사-박태복(마태오) 장성복(바오로) 선교부장-한기성(레오) 교육부장-김태영(살비노) 재정부장-노판석(알로이시오) 전례부장-노광용(비오) 홍보부장-정영덕(미사엘) 청소년부장-이봉기(마리오) 사회복지부장-서용문(요한) 예명부장-윤석연(아오스딩) 여성부장-박향자(프란치스카) 구역부장-서성남(모니카) 교문-박춘근(스테파노) 지금수(그라씨아) 박인식(아오스딩) 박종용(레미지오)
- 2. 가정 방문 안내
 - 14일(화): 오전 10-남노4반, 오후 2시-남노 5,6반
 - 15일(수): 오후 2시-인후 5반
 - 16일(목): 오전 10시-인후 9반, 오후 2시-인후 10,11반
 - 17일(금): 오전 10시-인후 6반, 오후 2시-인후 7,8반
- 3. 모임: ①장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5일 어머니 미사 후) ③재속형제회(18일 후 2시) ④대건회(19일 장엄미사 후) ⑤자비의 모후Cu. (19일 장엄미사 후)
- 4. 다음주일(19일)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 5. 축! 혼배: 19일 12시30분, 신랑-김거원(프란치스코) 군, 신부-전효숙(마라나) 양
- 6. 금주 청소: 중노 26,27반, 차주 청소: 남노 1, 남노 3반
- 지난주 봉헌금: 1,000,750원 □ 교무금: 1,03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연도대회: 11월22일(수) 후 7시30분
* 많은 참석바랍니다.
- 2. 금주 모임: 프란치스코 삼회-11월12일(일) 후 2시, 회합실 빈켄시오-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 뜻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 3. 초·중 교리교사 성탄연수:
 - 초등부-11월11일(토)~12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중·고등부-11월18일(토)~19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 4. 감사합니다: 진흥APT 고재영(스테파노) 형제님이 의자갈게를 기증해주셨습니다.
- 5. 축! 혼배: 11월 12일(일) 전 11시
신랑-남일권(바오로) 신부-김성아
- 6. 성가 연습: 매주 수요일 후 7시30분, 장소-성당
*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7. 청소 안내: 금주-사랑의 샘
차주-상아탑
- 지난주 봉헌금: 983,000원 □ 교무금: 1,06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점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삼기

- ◎ 11월은 위령성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미사와 기도 바칩시다.
- 1. 소롱동 성당 신축: 2차헌금 있습니다.
- 2. 다음주일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평신도 강론: 새벽·저녁미사-김종숙·요한
공식미사-신일균 아오스딩
- 3. 박상기 안드레아 형제가 새 사목회장으로 뽑혔습니다.
- 4. 대건회 임원 개편: 회장-김현덕(다미아노, 총무-변혜식(바울리노, 재무-이상은(율리아노, 서기-유달수(안드레아
- 5.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 18~19일, 나바위(최윤호(베드로, 이수정(아셀라, 육인영(안나(참가)
- 6. 모임: 요셉회, 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16일(목) 오전 10시
패스카회-19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지해룡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최정환 부부
봉헌-송명진 가족
- 성당 청소: 11월18일(토) 의덕의 거울Pr. 다텔의 탐Pr.
- 지난주 봉헌금: 641,150원 □ 교무금: 1,006,5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축! 남 엘리사벳 수녀님 영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1월 17일).
-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재속글라라 형제회(후 3시)
④사목회(후 8시)
- 2. 사라회: 14일(전 11시)
- 3. 나자렛회: 14일(전 11시)
- 4. 사베리오회: 15일(후 7시30분)
- 5. 구역 반장 모임: 16일(전 11시)
- 6. 중·고 성탄연수: 18~19일 나바위 피정의 집
- 7. 삼설 고백소 설치: 11월7일부터 매주 화요일~금요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단 3월,12월 판공시기는 제외)
- 8. 차주: ①평신도 주일 2차헌금
②마녀의 성모Cu. (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 9. 고집 전례 안내
 - ①혼인면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②성체장복 및 조배-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 ③병자 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오후 2시
 - ④유아 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 ⑤차량 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감덕용

- ◎ 11월은 위령성월: 연영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묵상합니다.
- ◎ 사목회장 임명: 강덕용(베르나르도) 형제
-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성가대, 새 영세자 모임-다음주일
③장년회-18일(토) 성당 회합실
- 2. 가정 방문: 15일(수)-책장, 하신광
16일(목)-상신광, 원신리
17일(금)-수원지, 묘동
- 3. 감사: 성전보수비 봉헌-이옥동(20만원) 이병수(10만원) 이옥자, 안옥남(5만원) 박순복(2만원) 계-4집2만원, 누계-7백5십1만3천원
- 4. 지속적인 성체조배: 16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
- 5. 성당 청소: 금주-성실하신 동경너Pr.
차주-사랑하올 어머니Pr.
- 6.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김완식 ②김금자
봉헌-강인기 가정
- 7.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송정자
봉헌-남동근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87,350원 □ 교무금: 398,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삼근

- ◎ “죽은 사람들 중 제일 먼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으소서”(독서 1,5-6)
- 1. 사목회 상임위원회: 14일 저녁 8시, 사목회회 집토
- 2. 각 구역별 연도대회: 27일 저녁 7시, 19일까지 접수
- 3. M.E 57차 감승회: 17일~19일(천호), 최영목, 박경자(마리아) 부부
- 4. 초등부 교리교사 정기총회: 18일 후 5시30분
- 5. 중·고 교리교사 성탄 연수: 18일~19일 나바위, 18일 후 1시30분 센터 출발
- 6. 성체 신심 묵상회: 13일~17일 말씀의 전례, 14일-사목회장님, 15일 11시-여성 전례부, 저녁 7:30-남성 전례부, 16일-전례 부장님.
- 7. 쉬는 교우 방문: 14일 전 9시 4구역, 16일 전 9시 5구역
- 8. 성소 후원의 날: 19일 공식미사 후, 미사 전후 회비 납부
- 9. 회의: 천주의 모후Cu. -오늘 후 2:30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성모회-15일 어머니미사 후
임마누엘, 한빛회-19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19일 저녁미사 후
- 10. 성전 신축부지 모지 이장에 수고해주신 성심 장의사 오 벨라도, 오 규(다미아노), 조대식(말구) 최원동(비리버)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1. 신축기금마련 사진 판매: 백두산, 금강산, 바티칸 등
- 지난주 봉헌금: 1,394,000원 □ 교무금: 2,160,000원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